

科学技術 発展의

— 우리모든 科学技術人은

尊敬하는 成佐慶科学技術処長官, 内外貴賓, 그리고 国内外 科学技術人 여러분!

오늘 第7次 国内外 韓國科学技術者 綜合學術大會 開幕에 즈음하여 本人은 大會長으로서 멀리 美洲地域으로부터 母國을 訪問하여 주신 科学技術人과 家族여러분을 衷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이 綜合學術大會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在外韓國 科学技術人들이 地域別, 隔年制로 参加하여 国内 科学技術人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最新 科学技術情報를 相互交換 하는

唯一한 広場으로서 어느덧 第7次 大會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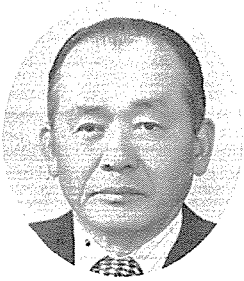
今年에도 美洲地域에서 우리 科学技術人들이 많이 参席하여 世界的 最尖端을 달리고 있는 科学技術 知識을 털어놓고 討論함으로써 우리나라 科学技術 發展을 이룩하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契機가 될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親愛하는 科学技術人 여러분!

그동안 우리 科学技術人들은 各 分野에서 여러분과 合心하여 經濟 發展을 이룩하였을 뿐만아니라 특히 지난해와 같은 어려운 時期에도 不拘하고 150億달러라는 輸出目標를 達成하는데 크게 貢獻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国力伸張의 關鍵이 되는 技術 自立과 科学立國이란 國家的 召命을 조용히 實踐하는 先導者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科学技術投資는 그 成果를 하루 아침에 期待할 수 없는 것으로 어는 分野보다도 懷妊期가 길다는 點을 漸次 攄得하게 되어 이제는 科学技術에 對한 一般의 認識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實際로 政府와 民間에서 過去에는 상상도 못할 많은 研究開發費를 割愛하고 적극 支援하게 된것도 이러한 特殊性을 考慮한 때문이며 國家百年大



閔寬植大會長

새로운 契機 確信

国力伸張의 先導者되야 —

計를 爲하여 매우 鼓舞的인 事實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石油波動으로 인한 全世界的인 不況은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으로서 賦存資源이 없는 國家들에게 커다란 試鍊을 주고 있어 이를 克服하기 爲해서는 새로운 科學技術이 絶對적으로 要請되고 있습니다.

親愛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지난 70年代 高度經濟成長의 主人公이었던 우리는 80年代에도 期必코 持續的인 國家發展을 이룩하기 爲하여 보다 能動的이고 進取的인 研究開發活動을 展開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莫重한 우리의 責務를 完遂할 수 있도록 이번 綜合學術大會에서는 「80年代 韓國科學教育의 課題」란 워크샷을 通하여 우리나라 科學技術教育의 方向을 모색하는 한편 大德專門 研究團地로 자리를 옮겨 「80年代에 너지」問題를 폭 넓게 다룰 計劃입니다.

앞으로 12日이란 비록 짧은 期間이지만 學術論文의 發表外에도 專門分野別로 關聯機關과의 워크·샷과 懇談會를 가지면서 研究機關과 産業界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美洲地域에서 오신 科學技術人 여러분을 爲하여 過去 어느때보다 더욱 有益한 母國訪問의 機會가 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고 있으므로 變貌하는 祖國의 참모습은 두루 살피시어 즐거운 追憶이 남는 愉快的 旅程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本人은 이번 綜合學術大會를 爲하여 여러가지로 協調를 아끼지 않은 科學技術人을 비롯한 各部人 그리고 協贊機關과 言論關係者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家庭에 幸運이 깃드시길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0. 7. 14

第7次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

大會長 閔 寬 植